

2020년 26회 1차 시험 『공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천교 법무사 (야간반)

금년 공탁법의 경우 우선 시험분량 면에서 볼 때 지난해 보다 시험지문 길이가 오히려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박스형 문제도 지난해는 5문제였으나 금년에는 3문제였으며, 총 시험지 페이지 분량도 작년에는 딱 차게 4.5 페이지였으나 금년에는 4페이지가 채 안되었습니다.

결국 공탁법의 시험문제 분량은 작년에 비해 최소한 2-3문제 정도의 분량이 적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함께 시험을 보는 부동산 등기법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약간의 점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공탁법의 경우는 여전히 기출지문 출제 비중이 상당하였고,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작년이나 금년 모두 비슷하게 5개 가량 출제되었습니다.

분야별 출제비중을 비교해 볼 때, 공탁 일반 내지 총칙분야의 출제가 작년 6문제에서 금년 10문제로 대폭 증가한 반면 그 만큼 변제공탁 부분의 출제문제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었고, 다른 부분은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탁(보관공탁, 몰취공탁, 몰수보전, 선박소유자책임제한 등)분야의 출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의 부분은 점수변동 요인의 면에서 작년대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작년보다 금년의 경우 조금 구석진 부분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 생소한 지문이 약간 있었으며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약간의 점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개 안되는 편이었으며, 그 중 일부 문제는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탁법의 경우 기본서 내용 자체가 적은 편이며 금년에도 대부분 공탁법 기본서에서 아주 벗어나지는 않는 문제들이었기에 점수하락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년 공탁법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